

日本 石油製品수입 논쟁의 속사정

1. 머리말

최 근 산유국등으로 부터의 石油製品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日本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로부터의 휘발유 수입 계획이 표면화된 것을 계기로 제품수입 자유화 추진과와 수입자유화로는 공급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반대파로 양분되어 있다. 한편, 美国에서는 제품수입 증대에 따라 국내 경제업계가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나자 경제안정 보장과 관련하여 수입규제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일고 있다. 시장개방 문제와도 얽힌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문제는 과연 어떻게 결말지어질 것인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 최근 美国에서 대두되고 있는 석유제품수입 규제문제를 다루어 본다.

2. 휘발유 수입논쟁의 발단

日本 통산성 資源에너지庁은 지난 2월 하순 『석유제품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3월중에 石油審議會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日本 석유업계 수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으로서는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이 검토한다는 것은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며,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석유제품 수입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石油製品 수입문제는 라이온즈石油가 작년 12월 초에 싱가포르로부터 월간 3천kl의 휘발유를 수입하려 하자 일시에 제기되었다. 라이온즈石油측은 『소비자는 값싼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 값싼 석유제품이 있는 이상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통산성이 소비지정제주의를 내세워 수입증을 권고하게 되자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消費地精製主義는 通産省이 그 동안 일관하여 추진해온 석유정책의 기본이다. 거의 전량의 石油를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日本으로서는 『석유의 공급안정을 위해서는 原油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각종 석유제품을 정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석유제품의 수요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크게 변동하고 수요구조도 크게 변했다. 전 석유제품 소비중에서 重油가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지금은 30%대로 저하한 반면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경질제품이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通産省은 석유정제업을 허가제로 하고 제품수입에 대해서는 「石油業法」 하에서 신고제로 하면서도 일정 범위내에서 B-C油와 나프타에 한해 수입을 인정하는 원칙적 금지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라이온즈石油가 『소비지정제주의 때문에 국산 휘발유값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며 신고제를 역이용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신고만 하면 휘발유도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비지정제주의에 도전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1월에 日本을 방문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슈테르크사무국장은 라이온즈石油의 수입계획 철폐에 대해 『일본시장은

폐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3. OPEC의 수출능력 확대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등 中東 산유국의 石油製品 수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산유국은 原油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정유공장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작년 8월에 Mobil社와 합작으로 홍해쪽에 안부 정유공장(정제능력 25만B/D)을 완공했으며, 오는 4월에는 Royal/Dutch Shell社와 합작으로 주베일 정유공장을 가동하게 된다.

현재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180만-190만B/D이지만, 오는 87년 말에는 건설중인 정유공장이 가동되어 250만-350만B/D의 석유제품이 세계석유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대부분의 석유제품을 極東시장에 공급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4. 반대론

日本石油連盟 회장이면서 日本石油의 사장인 다케우찌씨는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는 절대로 반대한다. 日本으로서는 앞으로도 소비지정제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이며, 자원없는 나라에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을 확보하는 길은 이것 밖에 없다』며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론을 펴고 있다. 현재 세계 석유수출입량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의 비율은 불과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原油가 그 대부분이다. 더우기 석유제품의 시

中東 산유국의 수출용 精油工場 신설계획

국명	정유공장명	정제능력	가동시기
사우디아라비아	○주 베 일	25만B/D	1985년 4월
	○얀 부	25만B/D	1984년 8월
	○라 비 그	33만B/D	1987년 8월
쿠웨이트	○미나압둘라	16만B/D	1986년중반
U A E	○아 주 만	20만B/D	1987년중
리비아	○라스타누프	20만B/D	1986년말
합계		139만B/D	

황은 原油 이상으로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가격이 불안정한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다케우찌 회장은 계속 반대론을 펴고 있다.

石油는 다른 공업제품 이상으로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제품이다. 정부가 90일분의 석유를 민간에게 비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부 스스로가 30일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3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제품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국내 석유공급이 아주 어렵게 된다. 原油의 경우라면 공급원도 많고 비상상태를 극복하기 쉽다』는 것이다.

日本 석유업계내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현재 제품수입 자유화에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다.

5. 찬성론

그러나, 「소비자 본위」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出光興産만은 즉시 완전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어 日本석유업계내에서는 유일하게 찬성론을 펴고 있다. 이 회사는 『해외에 값싼 석유제품이 있으면 이를 수입하는 것이 소비자와 수요가에 대한 석유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를 업계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며, 라이온즈 石油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다. 『석유업법에 의한 행정지도로 업계를 보호해 온것이 결과적으로 석유회사의 활력과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메이저의 세계 전략중 일익을 담당하면서 본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외자계 석유회사들의 입장은 『제품수입을 일시에 추진하면 국내 정제업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국내제품 시황도 위협을 받는다』-는 등 제품수입 자유화에는 일단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出光興産은 국내 정유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더욱 추진하여 세계의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자유화 되어도 국내공급의 전량을 제품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에 값싼 물량이 있으면 그것을 기업의 자주적인 판단하

에 자유롭게 수입하게 하면 된다』며 수입자유화가 공급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 양상은 「자유화 찬성 1개사, 반대 28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수입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간파할 수 없는 것은 석유제품이 連產品이라는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산업용 연료인 B-C油의 수요비율이 약 30%로 단일제품으로는 비중이 제일 높으며, 휘발유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20% 전후이다. 通産省은 일찍부터 「산업의 혈액」 또는 생활필수품이라는 관점에서 B-C油와 등유가격을 낮게 설정하도록 업계를 지도해 왔다.

따라서 기업으로서 이익확보를 위해 휘발유가격을 높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현재의 가격체계는 燃料油 평균가격을 1로 하면 각 제품의 가격수준은 휘발유 1.4, 등유 1.04, 경유 1.05, B-C油 0.8이다.

그러나 美国에서는 채산상품인 휘발유 수요비율이 40%나 된다. 重油의 비율은 석탄·天然가스등 대체연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최근 美国의 휘발유 도매가격(세금공제)은 1 배럴당 약 26달러이지만, 日本에서는 약 50달러나 된다.

확실히 국산휘발유는 비쌀지도 모르지만, 각국의 에너지 사정은 차이가 있는 것이며, 국산휘발유를 국제 수준으로 낮추면 채산성이 안맞는다는 사정이 있다. 여기에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석유공급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6. 제품수입을 규제하려는 美国의 사정

금년초 美国 메이저 중의 하나인 Texaco社는 석유제품 수입규제 건의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만큼 美国석유업계는 석유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美国에너지성(DOE)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의 제품수입량은 하루 평균 197만 8천 배럴로 전년동기비 14.9% 증가했다. 이중 휘발유는 28만 8천 B/D로 16.6% 증가했으며, 경유 등 중간유분은 27만 8천 B/D로 59.8%나 증가했다. 국내소비량(84년, 1천 5백 76만

9천 B/D)에 대한 제품수입량의 비율은 83년보다 1.2% 포인트 높아져 12.5%가 되었다.

달러貨 강세에 의한 對美수출 환경의 호전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외에 사우디 아라비아, 루마니아, 中共 등으로부터의 제품이 늘어났으며, 탄광 파업으로 증유를 중심으로 증산한 英国으로부터도 잉여 휘발유가 대량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제품수입량의 급증은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시황의 악화를 초래, 작년 11월시점의 소비자가격은 81년 평균치보다 12% 내린 갤론당 1.19 달러이었다. 이 때문에 작년 3/4분기의 국내정제 판매부문 수익은 Exxon이 전년동기비 88% 감소한 2천만 달러, Mobil이 84% 감소한 1천 600만 달러로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정제능력 3만 배럴 이하의 소규모 정제공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폐쇄되었다. 지난 82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72개 정유공장(정제능력 210만 B/D 상당)이 폐쇄되었으며, 美国의 정제공장수는 229개소(정제능력 1천 580만 B/D)가 되었다.

제품수입의 영향은 확실히 크다고 할 수 있다. Texaco社의 건의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 두면 전략비축원유를 처리하는 정유공장조차 사라질 것이며, 경제안전보장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석유제품 수입관세율의 인상 등과 같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EC(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최근 산유국이 수출하는 연간 5천만 톤의 제품중 약 2천만 톤을 EC가 수입할 것이지만, 나머지는 日本과 美国의 양시장이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원유의 제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려는 산유국에 대해 제품수입형태로 선진국으로서 어느 정도 협력한다는 자세를 EC는 명확히 밝혔다. 이는 남북문제로서 대응하려는 것이며, 자유무역 원칙하에서 선진국간의 대등한 부담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日本經濟新聞)

